



공연팀 예라이 무대에 올라 창작극 '김신부부단'을 선보이는 모습.

〈예라 제공〉

# ‘傳’으로 만나는 흥겨운 이야기 마당

퓨전국악그룹 '예다', 춘향외전 '월매던' ... 16일 광산문화회관

공연팀 예라, '김신부부단' ... 31일까지 매주 일요일 공연마루

우리 고전문학 장르 가운데 하나인 '전(傳)'은 다채로운 이야기의 틀이 되어 왔다. '운명전'이나 '홍길동전', '유충렬전', '박씨전'처럼 교과서에 수록돼 익숙한 작품들도 있지만 많지만, 그렇지 않은 작품도 많다.

다소 낯선 작품을 기발한 상상력으로 엮은 두 편의 공연 '월매던'과 '김신부부단'이 관객들을 찾아온다.

먼저 퓨전국악그룹 '예다'가 춘향외전 '월매던'을 오는 16일(오후 7시 30분)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선보인다. 작품은 '만약 어사또가 아닌 변사또가 '혼남'이었다면 춘향은 어떻게 됐을까?', '춘향과 몽룡의 사랑놀음에 외로워하던 월매가 변사또의 관심을 받게 된다면 어땠을까?'와 같은 가정이 모티브가 됐다.

극의 주인공인 '월매'는 높은 관직을 갖고 외모 또한 출중한 변사또에게 한눈에 반한다. 절개를 지키던 춘향마저도 변사또의 관심을 받으며 갈등하는 상황이다. 과연 월매의 짝사랑은 이뤄질 수 있을까.

총괄 및 춘향 역에 이허련, 연출 및 월매 역은 이지영이 맡았다. 변사또 역은 박태영이 연기하며 해금(이지영), 대금(정은숙), 피리-태평소(박미강), 드럼(신보영), 무용(문다솜 등) 등이 연주한다. 전석 무료, 현장에서 선착순 좌석 지정.

아울러 조선문화와 생활사를 엿볼 수 있는 공연팀 예라의 '김신부부단'도 이달 말까지 매주 일요일(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진행된다.

조선 정조(1776~1800) 때 이덕무가 창작한 고대 소설 '김신부부사혼지'를 바탕으로 재탄생한 작품. 계속되는 천재지변과 가뭄으로 인해 흥흥한 조선, 백성들 사이에서는 거둬들인 국가적 환난이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노처녀 때문이라는 소문이 퍼진다. 조정에서는 빈곤한 백성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돈과 포복(배와 무명)을 지원한다.

그럼에도 가난한 탓에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 '김희집', 무뚝뚝한 노처녀 '신연례', 혼자만의 삶을 살아 가고자 하는 딱정수 '삼월이'는 나라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인물들이다. 왕은 희집과 연례 두 사람을 혼



‘월매던’

〈예다 제공〉

인시키고 삼월이의 짝까지도 찾아줄 수 있을까.

한편 공연은 '떡타령', '혼수 준비가', '가우제' 등의 음악 레퍼토리에 종합가극(기악, 연극, 퍼포먼스, 무용, 타악)을 가미해 60분 동안 선보이며 미디어아트 기술을 접목해 보는 재미까지 더한다는 계획. 전석 무료. 티켓링크 및 광주예술의전당에서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클래식으로... 승 떠나볼까?

스윗뮤직가든, 19일 광주북구문화센터

코로나19 이후 항공이 티켓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요즘, 잠시 음악으로나마 해위를 일주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해보는 것은 어떨까.

스윗뮤직가든(대표 홍빛나)이 '승 떠나볼까? 2 유럽의 작곡가 친구들'을 오는 19일(오후 5시) 광주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펼친다. 이번 무대는 클래식 음악의 산실 오스트리아부터 독일, 러시아 및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까지 유럽 각국의 예술도시를 대표하는 심포니로 채워질 예정이다.

먼저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사단조'가 울려 퍼진다. 그의 교향곡은 대부분 '낙천적'인데 25번과 40번은 41개의 작품 가운데 단조로 된 이상적 분위기를 띤다. 이외에도 독일 클래식 음악의 거장 베토벤의 '교향곡5 다단조 67번' 작품도 연주된다.

아울러 러시아 차이코프스키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필두로 프랑스 드뷔시의 작품, 영국 엘가의 곡과 노르웨이 그리그의 선율도 공연장에 울려 퍼질 예정이다.

한편 바이올린 연주는 홍빛나가 맡는다. 홍씨는 전남대 음악학과와 동 대학 교육대학원, 문화학과 박사과정 등에서 공부했으며 스윗



홍빛나

정승훈

뮤직앙상블을 이끌고 있다. 또 플루티스트 표지윤은 전남대 음악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광주원드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오보에 연주를 맡은 류혜인과 첼리스트 이하빈은 광주예고, 전남대 음악학과 동문으로 각각 필른 국립음대와 아우스부르크 국립음대에서 수학했다. 피아노 연주를 맡은 정승훈은 건국대 음악교육과와 미국 신시내티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오지영은 해설을 맡아 각국의 클래식을 역사와 문화 등과 연계해 풀어낼 예정이다.

전석 1만 원.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채널 스윗뮤직가든이나 전화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이상준 감독 '너의 순간' 16일 광주극장서 개봉

"저 좀 재워주실 수 있어요?"

한여름 바닷가 캠핑카에 쏟아지는 호우처럼 찾아온 여인 '영'. 그녀는 초점 없는 눈으로 해변의 피사체를 그러모는 남자 '정후'에게 밀물처럼 다가온다. 여름 해변의 일렁임과 테트라포드에 부서지는 파도 부스스리기, 그리고 아름다운 미장센까지.

이상준 감독의 영화 '너의 순간' (사진)이 오는 16일 광주극장에서 개봉한다. 이번 작품은 그동안 범죄, 액션, SF 장르가 넘쳐났던 극장가에 오랜만에 개봉한 로맨스물로 눈길을 끈다.

작중 '정후'는 보헤미안처럼 살아가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어릴 적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포토그래퍼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다. 사진찍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가 갖고있는 어머니와의 추억을 담은 사진은 한 장뿐.

'영'은 정후가 바닷가에서 문자 그대로 '딱 찍은 여자'다. 그가 카메라로 등대와 절벽을



준인하다가 문득 돌아본 그녀가 렌즈 안에 들어온 것. 영은 처음에는 우연히 셔터박스 안으로, 비오던 밤에는 정후의 캠핑카 속으로 밀려들었는데...

여주인공 영 역은 옥자연이 맡았다. 정후 역은 우지현 배우가 맡았으며 이상일, 정이현, 김명선 배우 등이 출연한다.

러닝 타임 84분. 상영 일정은 광주극장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광주시미술대전 한국화 부문 대상에 심수경 '번창하리라'

서양화 부문 빙후승 '시간이 머문 자리' 15개 부문 대상 4점 등 1000점 입상

제36회 광주시미술대전에서 서예 부문 이종화 작가의 '호읍선생시', 한국화 부문 심수경 작가의 '번창하리라', 서양화 부문 빙후승 작가의 '시간이 머문 자리', 한국화 대학부에 유재원 작가의 '글레'가 각각 대상을 수상하는 등 모두 1000점이 입상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미술협회가 주관한 올해 행사에는 15개 부문에서 1848점이 출품돼 대상 4점, 최우수상 15점, 우수상 23점, 특선 279점, 입선 679점 등 모두 1000점이 상을 받았다.

이번 미술대전에는 각 분야별 개성 넘치는 안목과 다양한 조형언어로 표현된 작품들이 대거 출품됐다는 평가가 따른다.

최재철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에서 "작품 수준에서는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작품들이 많이 출품돼 예년과 비슷한 면을 보였다"며 "대학부의 신선은 꿈을 가진 젊은 세대의 관심을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청년 작가의 예술 활동에 초석이 되고 있어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심수경 작 '번창하리라'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50만원, 대학부 대상 300만원, 대학부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29일 오후 2시 광주예총 방울소리 공연장에서 열리며 입상작 전시회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20일간 광주예총 백련, 지호전시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우수상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 ▲공예=김태호(귀문갑) ▲문인화=고



빙후승 작 '시간이 머문 자리'

소고(목곡), 오성록(목매) ▲사진=김성조(시선), 김창호(엔택트 뉴노멀) ▲서각=박승배(추사 김정희 세한도) ▲서예한글=최정근(아이유-개여울 중에서) ▲서예한문=정용환(채근담구) ▲수채화=정송희(일렁이는 감정에 인사하기 하나) ▲전통미술=정영(책거리), 최미경(몽유오봉도) ▲캘리그래피=김선희(아버지의 바다), 정미아(별 일), 이계현(노을) ▲대학부(서양화)=박희문(죽음).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재일디아스포라미술' 학술세미나... 11일하정웅미술관

재일디아스포라작가들의 작품세계와 미술사적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은 '간사이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일디아스포라미술'을 11일(오후 2시)에 하정웅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하정웅컬렉션 재일디아스포라 작가전 '김영숙-삶, 그리고 해후' (10월 29일까지 진행) 연계 학술세미나로 마련됐으며, 하정웅컬렉션에 다수 포함돼있는 일본 간사이지역(고베, 오사카, 교토, 나라 등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세미나의 발제는 백름 대표(재일코리아미술작품보존협회)가 '일본 간사이지역의 재일조선인 미술가들의 활동기록', 저널리스트인 카와세 슌지(미술비평가)가 '재일코리아 미술가의 광망(光茫)-고려미술회를 중심으로'

를 발표한다.

질의와 토론은 연립서가 최재혁 편집장, 경기대 김복기교수(아트인컬처 대표), 김석출 고려미술회장립자가 참여하며, 종합토론은 전남대 정금희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김준기 관장은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전시나 세미나에서 소개될 기회가 적었던 간사이지역을 대상으로 재일작가들을 발굴 조명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제1, 2세대 작가들 외에도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제3세대 작가들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 종료 후 하정웅컬렉션 재일디아스포라작가전 '김영숙-삶, 그 이후' 전시 개막식이 오후 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옥상스틸방수



사무실 광주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